



조민경

최지혜

한다은

이윤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수여

본회 권영걸 회장은 지난 2월 2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재단법인 관악회 2025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장학금 수혜자는 조민경(23디자인), 최지혜(23조소), 한다은(23동양), 이윤서(24서양) 학생으로 총 4명이다. 이날 수상자 조민경 학생은 "미술대학 학생회장으로서 이번 장학금을 받게 되어 뜻깊다. 학업과 창작 활동, 학생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큰 책임감을 느꼈지만, 이를 통해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 학생회장으로서 미술대학 공동체의 발전을 고민하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창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일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하며, 이번 장학금이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뜻깊은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미

술대학을 위해 더욱 헌신하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지혜 학생은 "장학금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 지난 2년간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전공인 조소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과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기대된다. 입학 당시 교수님께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 명확한 답을 얻는 것보다 자신만의 질문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저만의 질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더욱 빛나게 해주신 미대 동창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다은 학생은 "미술대학 동창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감사드린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기쁘며, 예술가로서 성장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 책임감과 자긍심을 느낀다. 현재 동양학과 학생회장으로서 학과 운영과 학생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양화과의 발전과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학과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하며 선후배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학교와 사회에 기여하는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윤서 학생은 "선배님들께서 수여해 주시는 2025년도 1학기 장학금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학생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창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본회는 관악회에 미술대학 특장학금을 기탁해 매년 2회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2023년도 2학기부터는 학생회 활성화를 위해 미대 학생회 및 각 학과의 회장, 부회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그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있다.

본회소식



미술실기강좌 봄학기 개강

본회 S-미술아카데미는 지난 3월 5일부터 2025년도 봄학기 미술실기강좌를 시작했다. 오는 6월까지 15회에 걸쳐 진행되는 봄학기의 강좌는 ▲프리페인팅(강사 조명식), ▲유화(강사 안성규), ▲기초소묘(강사 김호준) ▲태블릿PC로 그리는 유화·수채화·AI의 활용과함께(강사 이필두) ▲태블릿PC 디지털페인팅-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강사 이영훈) ▲여백과 묵향의 힐링·사군자·문인화(강사 변영혜) ▲수채화(강사 박혜령) ▲자유크로키(강사 없음) 등 총 8개 강좌다. 8개 강좌 모두 오랜 시간 실전 경험과 교육 경험을 쌓아온 강사들이 수강생의 수준과 필요에 맞춰 개별 지도를 한다. S-미술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S-미술아카데미 실기실(백악미술관 2층)에서 진행된다.

강좌안내: 서울대미대동창회 홈페이지: <https://www.snuarta.or.kr/>
수강문의: 02-877-8065(평일10~17시) 문자신청: 010-8605-8065

회장동정



자랑스런 보성인상 수상

본회 권영걸 회장이 지난 2월 18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보성교우회 신년하례식 및 정기총회에서 '제30회 자랑스런 보성인상'을 수상했다.

2025년 한국건축가협회 신년회 참석

본회 권영걸 회장(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지난 2월 19일 2025년 한국건축가협회 신년회에 참석했다. 신년회에서 2025년 건축 산업의 발전 기원과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5 S-미술아카데미전
2025.3.14 — 3.20
AM 10 ~ PM 6
백악미술관 3F 서울 종로구 인사동9길 16

주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주관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

2025 SNU한국화대전
한국화의 원류와 그 반향

2025.3.14~3.20
AM 10 ~ PM 6 *휴관 없음
백악미술관 서울 종로구 인사동9길 16

주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후원 백악미술관
주관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 문의 02 555 1946 白岳美術館

숨은 예술가들 2025

2025.3.20-28
10:00-18:00 (일, 월 휴관)
한전갤러리 1층
서울 서초구 효령로72길 60 한전아트센터

주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주관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 후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2025 S-미술아카데미전
S-미술아카데미전은 본회 산하 S-미술아카데미에서 2024년도 봄학기 강좌부터 겨울특강까지 1년간 진행된 미술실기강좌의 수강생들의 작품과 지도 강사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S-미술아카데미의 첫 번째 결실을 선보이는 전시로, 수강생들의 예술적 성장을 기념하고, 서로의 여정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개최된다.

2025 한국화대전-한국화의 원류와 그 반향
2025년 신년을 맞아 본회가 백악미술관과 함께 개최하는 '2025 SNU한국화대전'은 한국화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원로작가부터 한국화의 현대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젊은작가까지 서울대 미대 출신 작가들의 역량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화의 전통과 현대적 변화를 함께 공유하고, 서로의 예술적 성장을 격려하기 위한 전시이다.

숨은예술가들 2025
본회가 주최하는 '숨은예술가들'은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으나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 타전공 서울대학교 동문들을 위해 마련한 전시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교육자, 의료인, 법조인, 음악가, 사업가, 건축가 등이 그동안 해온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적 표현을 선보인다.

모교소식

정의철 학장 연임, 부학장에 박제성·조인호 교수

지난 2월 3일 모교 제22대 학장에 디자인과 정의철(88산미) 교수, 학생부학장에 조소과 박제성(98디자인) 교수, 교무부학장에 동양화과 조인호(96동양) 교

수가 취임했다. 지난 2년 동안 학장으로 모교와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연임하게 된 정의철 학장은 모교 산업미술과에서 학사 및 석사, 일리노이 공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신임 박제성 학생부학장은 모교 시각디자인과에서 학사, 영국 왕립예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신임 조인호 교무부학장은 모교 동양화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취임사] 정의철 학장



미술대학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예전과 사뭇 다른 재해와 재난, 사건 속에서도 봄의 기운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의 눈보라 속에서도 캠퍼스는 움츠러들기는 커녕 신입생들의 설렘과 학생들의 열정으로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술대학 캠퍼스는 학생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50, 51, 52동에 이어 2025년에는 49동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946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로 설립된 미술대학은 지난 79년간 한국의 대표적 미술 교육기관으로 성장하여, QS Art & Design 순위에서도 국내 대학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세계 10위권 학문분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SNU 10-10 프로젝트」에 도전한 결과로 잠재학문분야로 선정되어 다양한 재료와 매체를 활용한 창작 실험, 그리고 학생, 동문, 사회 각계각층 인사와의 예술 정신과 지식 교류의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대학의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동문 여러분들께서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졸업 이후에도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2년간 학장으로 많은 동문 여러분들을 뵈면서, 동문 선배님들의 창작 정신과 열정의 깊이, 그리고 모교에 대한 애정이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다는 것을 매 순간 느껴왔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미술인으로서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는 아름다운 정신에 존경을 표하며 머리 숙여 깊이 감사 인사 올립니다.

연일 뉴스에서 소개되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진화로 이제는 인간 존엄성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에서 알 수 있듯, 미술은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면서 시대정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미술가와 디자이너로서의 자아를 가진 창작자의 길을 개척한다면, 미래 사회에서 미술 분야의 위상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술이 제 역할을 찾기 위해, 미술대학은 미래를 만들어 갈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동문들의 창작 실험에 대한 열정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2024년 《Lost & Found 다시-찾기, 만남과 발견의 기쁨》 특별전을 통해 신진 작가와 디자이너의 작품을 소개하였으며, 2025년에는 '창작후원기금' 사업과 함께 미술대학의 80년의 역사를 돌아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술대학 동문 여러분들께서는 창작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묵묵히 찾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실험은 변화와 위기를 헤쳐 나가는 자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교가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술대학은 동창회와 협력하여 아름다운 창작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혜의 밑거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사] 박제성 학생부학장

존경하는 미술대학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술대학 학생부학장을 맡게 된 박제성입니다.

미술대학의 동문 한 분 한 분은 우리 대학의 든든한 자산이자, 후배 학생들에게 어떠한 수업보다 큰 교육이자 동기부여가 되어 그들이 예술가로서, 창작자로서,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의 현장에서 매일 이러한 힘을 직접 경험하며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술대학의 교원들은 서울대학교 전체의 교육과 연구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과의 융합을 시도하며, 미술관

문화예술원, 기초교육원 등 여러 기관에서 새로운 역할을 확장하고 중요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대학교가 지닌 문화적 가능성을 확장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문화예술이 시대를 이끄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능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예술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를 안겨줍니다.

이처럼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미술대학 동문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미술대학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사] 조인호 교무부학장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무부학장을 맡게 된 조인호입니다.

먼저, 미술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교무부학장의 역할을 맡게 되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그리고 다

양한 학문과 예술의 융복합이 가속화되면서, 예술의 개념과 표현 방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술대학은 예술을 가르치는 곳을 넘어, 창의적 사고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적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동창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연구와 교육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술은 늘 시대를 반영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어왔습니다. 미술대학이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교소식



2025학년도 입학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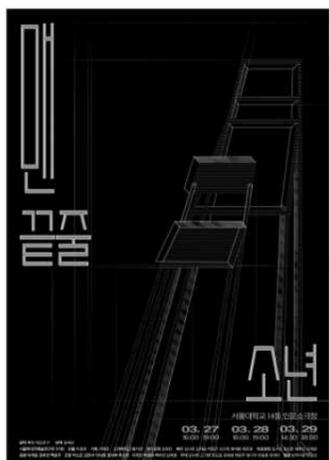
모교(학장 정의철)는 지난 2월 26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미술관에서 2025학년도 모교 입학식을 진행했다.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은 학사 109명, 석박사 72명으로, 신입생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교에서의 첫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정의철(88산미) 학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정학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함께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로 자랑스러운 서울대 미술대학 일원이 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제79회 전기 학위수여식

모교는 지난 2월 26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79회 2025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사졸업자는 동양화과 17명, 서양화과 13명, 조소과 15명, 공예과 13명, 디자인과 21명으로 총 79명이다. 석사 및 박사 졸업자는 동양화과 4명, 서양화과 8명, 조소과 9명, 공예과 4명, 디자인과 14명, 미술경영 2명으로 총 41명이다. 김한비(20동양) 동문은 “모교에서 지낸 시간은 기쁨과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말하며,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힘이 되어 졸업을 한 세계 큰 자산으로 남은 것 같다”고 졸업 소감을 전했다.

미대극회 117회 공연 <맨 끝줄 소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극예술연구회(미대극회) 117회 공연 <맨 끝줄 소년>이 오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대학교 14동 인문소극장에서 펼쳐진다. 미대극회는 1965년부터 공연을 올리고 있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내 유일한 연극 동아리이다. <맨 끝줄 소년>은 고등학교 문학교사 헤르만과 그의 제자 클라우디오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한 학생의 글에서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한 교사는 개인 교습을 제안하고, 클라우디오는 반 친구 라파의 가족을 글 속에 담으며 점점 더 깊이 파고든다. 그의 글이 현실과 뒤엉키기 시작하면서, 예술과 윤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된다. 이번 작품은 창작의 욕망과 윤리적 한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관객들은 각자의 현실속에서 작품을 다시금 곱씹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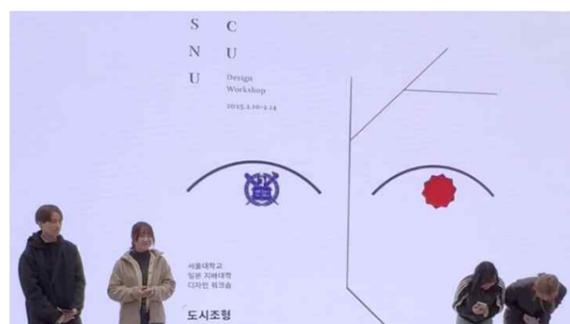
2025 새내기배움터 개최

지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영월 동강시스타 리조트에서 미술대학 새내기배움터(이하 새터)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새터에는 총 83명의 신입생과 38명의 재학생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올해 새터는 작년 ‘공음미약수 새터’에 이어 인문대학,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과 함께 연합하여 ‘인생음미 새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각 단과대학의 신입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넓은 교류의 장이 형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대학 생활의 첫 시작을 의미 있게 열 수 있었다. 행사의 첫날에는 신입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학사 일정과 수강신청 방법,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이 외에도 미대 지리 등 대학 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가 공유되었다. 또한, 선배들의 경험담과 조언을 들려주며 신입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행사 둘째 날에는 새내기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다양한 게임과 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웃음과 환호 속에서 친밀감을 쌓았다. 레크리에이션의 마지막 코너로는 신입생들을 위한 특별한 경품 추첨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이번 경품 이벤트는 미대동창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푸짐한 선물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추첨을 통해 ▲1등 애플워치(황현수 상임부회장 지원) ▲2등 에어팟(이민주 상임부회장 지원) ▲3등 마살스피커(김홍규 상임부회장 지원)가 행운의 주인공들에게 전달되었다. 당첨된 신입생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환호했고, 행사장에는 축하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 새터 둘째 날 저녁에는 신입생들을 위한 연합공연이 진행되었다. 이번 공연에는 응원단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단과대 동아리와 중앙동아리가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미술대학 새내기배움터는 신입생들에게 대학 생활의 첫걸음을 안내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따뜻한 자리였다. 미술대학 학생회 [노트]는 앞으로도 신입생들의 원활한 적응과 즐거운 대학 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다.(기사=조민경 학생회장)

디자인학부 치바대학 국제교류 워크숍



모교 디자인과와 일본 치바대학교 디자인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교류 워크숍 “도시조형”이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49동에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의 기억과 정체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탐구하고, 이를 창의적인 매체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이장섭(97디자인) 교수와 장익준 치바대학교 교수가 지도했다. 참가 학생들은 서울의 특정 지역을 직접 조사하며 소리, 움직임, 그래픽 등 다양한 요소를 채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운드스케이프, 퍼포먼스, 시각적 그래픽을 창작하고, 각 매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상 작업을 완성했다.

서울대소식



제79회 입학식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 2025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체육관(71동)에서 개최되었다. 오전 10시 30분 입학식에 앞서 열린 음대 악단 'SNU Wind Ensemble'의 식전 공연에 이어, 입학식에서는 신입생 대표 박진우(독어교육과) 학생의 '우리의 다짐' 낭독과 총장 및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있었다. 유홍림 총장은 환영사에서 "서울대학교가 연구, 교육, 실천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는 '작은 우주와 같다'고 비유하며 신입생들의 입학에 축하했다. 올해 서울대학교는 관악캠퍼스 종합화 50주년을 맞아 교육 혁신의 중심이 될 '학부대학'을 새롭게 출범한다. 유총장은 신입생들이 다양한 기회를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45만 동문을 대표하여 신입생들을 환영하며 서울대학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입학식은 신입생들이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였다.



2025 새내기대학

지난 2월 3일 '2025년 서울대학교 새내기대학'이 시작됐다. 유홍림 총장은 신입생들에게 환영인사를 전하며 "서울대학교에서의 시간이 여러분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학부대학, LnL(Living&Learning) 프로그램, 수강신청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부대학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이와 함께 대학생활문화원과 인권센터에서는 신입생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과 인권센터 안내를 진행했다. 고충 해결을 돕는 상담 프로그램과 신입생 심리 검사 서비스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내기대학의 핵심은 동기 및 선배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학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친목을 다지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오후 일정에는 멘토링 세션과 팀 파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멘토링 세션에서는 각 학과(부) 선배들과 신입생들이 함께 모여 대학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을 듣고,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팀 파워 프로그램에서는 캠퍼스를 누비며 주요 명소를 찾아가고, 팀별 미션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친목을 다졌다. 마지막으로 학생 동아리 공연, 팀 파워 프로그램 우수팀 시상식이 이어지며 새내기대학의 대미를 장식했다. 올해 새내기대학은 2월 3일, 2월 6일, 2월 11일, 2월 13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회차당 750명씩 총 3000명의 신입생이 참여했다.

학부대학 출범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이 지난 3월 1일 공식 출범했다. 학부대학은 서울대학교 교육 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공통핵심역량과 융합 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핵심 역량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전공 학습을 위한 기초 역량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초대 학장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노유선 교수가 맡았다. 행정기구, 산하기구, 교육기구로 이뤄진 학부대학의 새로운 상징은 디자인과 김경선 교수연구팀이 기획을 맡았다. 금빛 깃발, 지혜의 보석, 학부대학 영문명 조합을 통해 학부대학의 연결체 기능을 나타냈다.

윤대섭 성보화학 회장 473억원 기부



성보화학 윤대섭(농공학49) 회장이 서울대학교에 매년 지속적인 기부로 약 473억원(주식 포함)을 쾌척했다.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은 윤대섭 회장이 최근 57억원 상당의 주식 등을 농업생명과학대학 장학금으로 전달해 총기부금은 47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홍림 총장이 윤대섭 회장의 집무실에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윤대섭 회장은 "서울대학교에서의 배움과 경험,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던 경험이 오늘 날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런 소중한 배움의 터전이 더 나은 환경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윤대섭 회장은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장학금 수혜로 학업을 마쳤고, 성공한 기업가로서 그 시절 받은 장학금에 대한 고마운 사랑을 몇 배로 키워 꾸준히 나눔 활동을 전개 중이다. 성보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성보학원재단과 호림박물관을 운영하는 성보문화재단을 통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과 교육 문화 발전에도 공헌하고 있다. 모교인 서울대에는 농공 장학재단으로 꾸준히 기부해 왔으며 2000년 이후부터 발전재단 내 동원장학기금을 설립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



무기세(武器世)

서울대미술관(관장 심상용)은 지난 2월 6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무기세'를 전시 중이다. 무기세는 무기 생산과 기술, 방위산업, 전쟁 등 군사 및 군산복합체의 전 지구적 활동이 지구 환경을 비롯한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 시대를 조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군사주의를 통한 부위 추구는 사회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현재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류세에서의 멸종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것인가의 문제이며, 전쟁이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본질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이번 전시는 '무기화된 일상', '구경거리로 소비되는 무기', '무기세, 익숙한 미래의 세 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총동창회소식



재학생과 함께한 신년인사회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재학생들의 참여로 더욱 의미있는 자리였다. 후배들은 젊은 기운을 통해 새해의 희망과 힘찬 응원을 전했다. 김민규(21조선해양) 총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가 발전하고 시대를 선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학생, 교직원 모두가 함께 뭉치고 단합하면서 이뤄내는 그런 어떤 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리가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다. 이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함께 힘을 합쳐 우리 서울대학교가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고 건배사를 전했다. 황의지(21철학) ROTC 후보생은 "나라와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군 복무를 선택했다. 여러분들이 제게 해주셨듯, 저희 미래 세대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데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동문 46명 장학금 8900만원 기부

지난 1월 한 달간의 장학금 집계 결과 46명이 총 8925만원을 기부했다. 이동협(79조경/전 SBSA&T 대표) 동문이 5000만원을 쾌척해 1억원 약정을 채웠다. 박수만(75법학/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 동문은 1000만원을 보내 총 3000만원을 기부했다. 이기용(68독어교육/전 성동고 교장) 동문도 125만원을 기부해 2050만원 약정금액을 완납했다. 백영옥(81수의학/유바이오로직스 대표) 동문은 1000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이경준(98전기공학/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동문 10만원(약정 1070만원), 이상의(06국어교육/아셈자산운용리서치센터 근무) 동문 3만원(339만원), 전상우(10행대원/한양대 교직원) 동문 10만원(310만원), 이성민(10물리천문/SK하이닉스 선임) 동문 1만원(23만원), 김현일(13체육교육/군복무) 동문 10만원(600만원), 최이슬(14중앙생물학전공/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리신약센터 근무) 동문 5만원(305만원), 이유림(16전기정보) 동문 10만원(190만원) 등 1980-90년대생 젊은 동문들의 기부가 눈에 띈다.

관악경제인회 2대 회장에 서병륜 동문 선출



서병륜(69농공) 로지스올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열린 관악경제인회 정기총회에서 2대 회장에 선출됐다. 또한 감사에 김종훈(69건축) 한미글로벌 회장이 연임됐으며, 이정희(79경영) 전 딜로이트 안진회 계법인 회장이 새로 선임됐다. 서회장은 그동안 관악경제인회 수석부회장을 맡아 봉사했으며 현재 농생대동창회장과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장도 맡고 있다. 서회장은 수락 인사에서 "물류 시스템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선진 시스템을 안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관악경제인회를 명실상부한 서울대 출신 경제인단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악경제인회는 이날 올해 스타트업 포럼 3회, 조찬포럼 3회, 대학원생 창업경진대회, 골프대회 등 행사에 1억 5500여 만원을 책정했다. 관악경제인회는 현재 16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

- 일 시 : 3월 28일(금) 오후 5시 30분
- 장 소 : 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서울 소공동)
- 행사내용 :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 등
- 참가범위 : 사전 신청 동문 500명 이내 (회비 납부자에 한함)
- 참가신청 : 3월 7일까지(이름, 학과, 입학연도, 휴대전화번호 기재)
 -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이메일 member@snu.ac.kr
- 참가비 : 5만원/우리은행 1005-401-137376 서울대총동창회
 - 입금시 성함/학과/입학연도 기재
- 참가문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 전화 02-702-2233
- 협찬금 : 10만원 이상(계좌는 참가비 계좌와 동일)

서울대학교동문합창단 단원 모집공고

서울대학교동문합창단은 총동창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합창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합창 활동을 통해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가을, 제2회 정기연주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연주회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합창에 관심 있는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단원자격 : 노래와 합창에 대한 열정을 가진 총동창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연습시간 : 매주 일요일 오후 4시~6시
- 연습장소 : 삼익아트홀(강남구 학동로 171, 7호선 학동역 6번출구 50m)
- 입단문의 : 총무 (swee@ssu.ac.kr, 010-9454-9745)

제휴동문기업 모집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동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휴동문기업을 모집한다. 관심 있는 동문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란다.

- 모집개요
 - 목적: 동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및 상호 발전
 - 모집대상: 서울대학교 동문이 운영하는 기업

- 제휴동문기업 혜택
 - 총동창회 공식채널을 통한 기업 홍보
 -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

- 제안내용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원 대상 할인 혜택 제공
 - 할인을 및 적용 범위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 ~ 4월 30일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소개서
 - 신청방법: 신청서(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후 이메일 제출 (이메일 주소 jang9869@hanmail.net)

- 선정 절차 및 기준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선정
 - 선정기준: 기업의 안정성, 성장 가능성, 동문사회 기여도 등

6. 문의 : 02-879-8204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25.1.1-3.10)

- 부회장회비 김창수(82응미) 나성숙(71응미) 채혜선(82응미) 허진(81회화)
- 이 사 회비 박소영(73회화) 박혜령(74회화) 최명애(70회화) 전민숙(74조소) 한석란(71조소)
- 평 생 회비 김형숙(85서양) 황시연(17서양)
- 일 반 회비 김경희(71회화) 김륜아(15서양) 김성연(08조소) 김성우(87동양) 김유정(07동양) 김유진(석24공예) 김은정(81서양) 김제웅(59조소) 김지수(06동양) 김철효(63회화) 김형주(66회화) 김혜리(14서양) 류은선(16동양) 박덕실(81회화) 박영애(71회화) 박현주(87서양) 박혜경(78서양) 성소민(15동양) 손희옥(68회화) 양호일(58응미) 양희완(18동양) 이경희(67조소) 이관영(99동양) 이유라(08조소) 이주원(87동양) 이지선(82회화) 이태리(06조소) 이호경(17동양) 장현호(석사22) 전상수(50회화) 정은경(84조소) 정혜주(92서양) 조국원(61회화) 조현정(84조소) 최진주(80회화) 최홍순(63회화) 함미혜(04동양)
- 광고후원금 곽병두(84디자인) 50만원 선우향(91서양) 20만원

휴대폰으로 소식지를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말일 발행하여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

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 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후원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S-미술아카데미 봄학기 수강생모집

2025 봄학기 미술실기강좌 일정

월	화	수	목	금
10-13시	기초 소묘, 드로잉 (어반드로잉, 인물상작)	유화 (초,중급)	태블릿PC 디지털페인팅 (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김호준	안성규	이영훈	
14-17시	자유크로키 (누드)	태블릿PC로 그리는 유화 수채화 (시활용과 함께)	프리페인팅 (자유상작)	여백과 묵향의 힐링 (사군자, 문인화)
	강사없음	이필두	조명식	변영혜
				박혜령



접수기간

수시접수

접수방법

문자접수(010-8605-8065) 및 수강료 입금
납부계좌: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수강기간

3/4(화)~6/16(월) 15주 / 공휴일 휴관(보강 진행)
오전반: 10~13시 / 오후반: 14~17시
*자유크로키 12주

강의장소

S-미술아카데미 실기실(종로구 인사동9길16 백악미술관2층)

수강정원

강좌별 15명(신청순 접수, 복수신청 가능, 10명미만 폐강)

수강료

강좌별 45만원(15주 기준)
*자유크로키 24만원(12주 기준), 모델료 별도

강사진 및 아카데미 안내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S-미술아카데미)

문의

02-877-8065(평일 10시~1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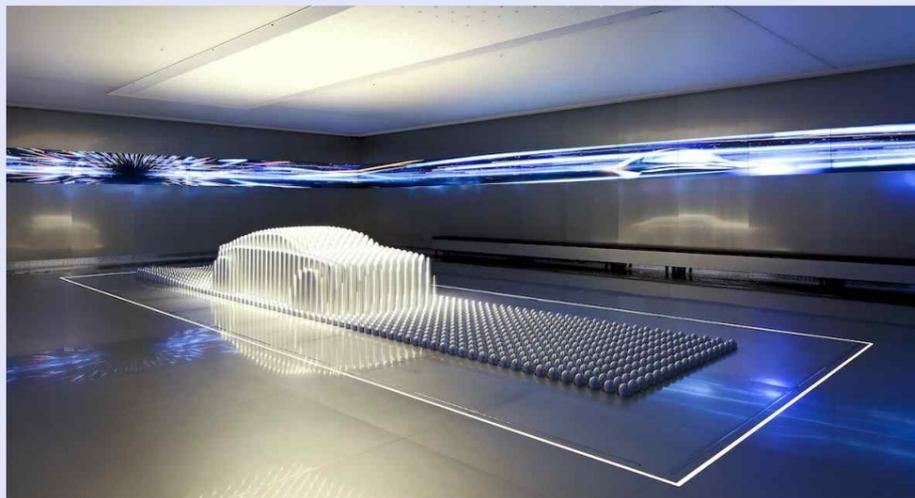
동문탐방

(주)지엘어소시에이츠
곽병두(84디자인)

(주)지엘어소시에이츠(이하 GL)를 창립하게 된 계기는?



대학 졸업 후 삼성전자에서 제품 디자인을 하다가, 오리콤에서 1993년 대전 엑스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공간 디자인을 경험했다. 7년간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간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비즈니스에 대한 안목이 생겼던 것 같다, 설계 중심의 디자인 프로젝션을 만들고자 1999년, 퇴직금 2300만원으로 사무실을 구하고 4명의 인원으로 GL을 창업했다. 나중에 대학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나는 기억나지 않는 데 나만의 유니크한 디자인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아마도 대학시절부터 꿈꾸어 왔던 것 같다. 창업 첫 해 설계 비용만으로는 회사를 운영하기 힘든 시기를 견디다 이듬해 "선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코엑스 부스 설계 및 시공 프로젝트를 받았다. 이후 크고 작은 전시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하며, 해놓은 일들이 일을 만들어주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벤츠 등의 비상설 전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을 수행했다. 정말 바쁘고 고단한 시간들이었지만 공간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내는 작업들이 즐거웠다. 규모를 키워가며 박물관, 전시관, 홍보관 등 대형 상설 전시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12년 여수엑스포에서는 5개 파빌리온을 맡아 100명 직원과 연매출 400~500억원을 기록했다. 2012년 회사가 송사에 휘말려 힘든 시기를 겪게 되고, 나 자신도 급성 우울증으로 자살충동 또한 심했다. 나와 회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회사로 재정비하고 있다.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전시관

학창시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권영걸 교수님이 모교에서 강의한 실내디자인 수업 덕에 건축과 환경디자인을 접할 수 있었다. 실내디자인과 환경디자인 과목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건축 및 환경디자인과 연관이 깊었고 현재의 일들을 할 수 있게 한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과제로 수영장 모형을 만들었다. 모형에 방수처리를 한 후 잉크물을 넣어 수영장 느낌을 재현했었으나, 과제전 당일 물이 새는 바람에 급히 방수 공사를 다시 한 기억이 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의 원천은?

디자인은 스타일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고객과 미팅을 하며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정리하게 된다. 일에 대한 고민을 하다 해결이 안 되면 얼마간 놔둔다. 며칠 지나면 새벽에 불뚝 일이 정리되는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니, 직관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한 가지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장르에서 해결 방법을 찾기도 한다.

2018년 삼성동 밤부타워를 세운 동기와 건설 당시 이야기는?



복합공간의 성격을 부여했다.

사옥 확장과 부동산 임대업에 관심이 있었다. 좁은 땅에 17층 건물을 설계하며 대나무처럼 디자인했고, 대나무가 주는 의미가 좋아 밤부 타워로 명명했다. 대나무가 자랄 수 있는 중정을 설계했다. 낮에는 주위 전망을, 밤에는 밤하늘을 즐길 수 있는 루프탑을 만들고, 지하공간에는 갤러리와 작은 시어터, 코워킹 공간 등을 만들어 단순한 사무실이 아닌 문화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사업은?



GL Farmers라는 농업법인을 설립해 5년째 관광농원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캠핑장, 캐빈, 한국 야생화 가든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

땅은 20년 전 맹지 상태에서 매입한 땅인데, 인근에 평창 KTX 역이 생기면서 입지가 좋아졌다. 5년 전 힐링을 위해 자주 평창을 찾았다. 밤하늘의 별과 반딧불이를 발견하고 작게 농사를 지어보며 자연이 주는 에너지가 나를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었다. 50여 년 전, 화전민들이 삶을 위해 살아가던 터라 그들의 에너지도 느낄 수 있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느끼는 힐링의 감성을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꾸미고 싶었다. 5만 평부지 중 1만 평을 관광농원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건축은 조병수 건축가, 조경은 서울대 조경진 교수가 맡았다. 그동안 "열정 아니면 말고"라는 나의 인생관 즉,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겨왔던 것이 내 과거의 삶이었던 것 같다. 지난해 현지 작업자들과 토목 공사를 진행하며 직접 땅을 다지고 나무를 정리하고, 새벽에는 스케치를 하며 산에서 지내는 일이 너무 재미있다. 즐기다 보니 어느 정도 설계가 완성되어 오는 4월 1일 착공해 내년 여름에는 손님맞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뫼(DUMÖ) 평창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속사천을 끼고 조성된 두뫼는 텐트족, 장박 건물, 자연 친화적 펜션, 야생화 정원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또한 GL 최초의 자체 프

로젝트이기도 하다. 브랜드를 발전시켜 주변 농민들과 잼, 술 등 농업 유통을 하고, 캠핑 장비 회사들과 협업해 자체 용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초기에 작가 레지던스와 갤러리를 계획했지만, 예산과 운영 문제로 2차 공사로 미뤘다. 1차 단지가 완성되면 작가를 위한 레지던스 공간을 조성하고 싶다.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앞으로의 꿈은?

마지막으로는 레지던스와 갤러리를 만들고 싶다. 아마도 평창이 될 텐데, 내년 1차 오픈 때 놀러 오시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또한 10년 정도 터울로 후배들이 대표직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차세대 GL을 견인할 후배님들의 연락을 기다린다.

주식회사 지엘어소시에이츠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9 밤부타워
이메일 gl@gl-ex.com 홈페이지 www.gl-ex.com

GL associates

www.gl-ex.com

BAMBU COLLECTION



*GALLERY
& THEATER*

BAMBU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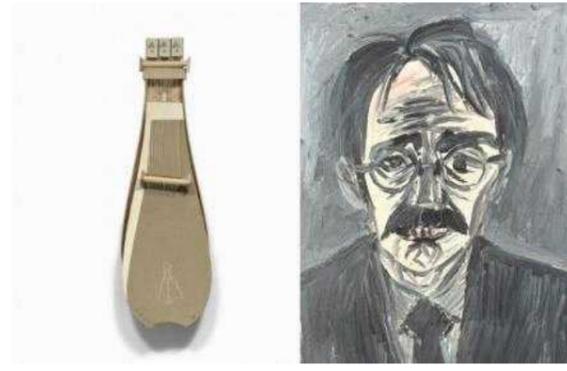
BAMBU TOWER, 449 BONGEUNSA-RO, GANGNAM-GU, SEOUL KOREA 06097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49 밤부타워 | 대관 문의 및 안내 02-6918-8246

@bambu_collection

장욱진미술관에 작품기증 김종학(62줄,회화) 임충섭(64줄,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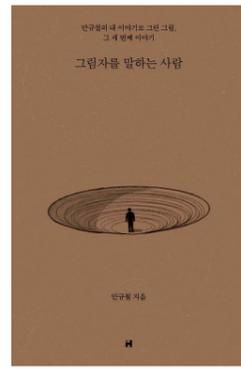
한국의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김종학 동문과 임충섭 동문이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했다. 김동문과 임동문은 장욱진(1917~1990)이 모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할 당시 제자로 인연을 맺었고, 장욱진이 1960년대 이후 유일하게 참여했던 미술단체 '양가추방'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번에 기증한 작품은 '장욱진 초상', '무제-1000와트'로 스승이자 선배였던 장욱진을 그리며 제작한 작품들이다. 장욱진에 대한 존경심과 동경심이 담겨있는 이번 기증작들은 장욱진의 인격적인 면모와 장욱진이 평소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는



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작품들로서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 양주시 관계자는 "작가의 진정성이 담긴 두 작품은 장욱진의 삶과 예술에 관한 연구와 전시기획의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기증에 대한 큰 뜻을 밝혀주신 김종학, 임충섭 작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림자를 말하는 사람' 출판 안규철(73조소)

안규철 동문이 지난 1월 3일 출판사 현대문학에서 그림 에세이 '그림자를 말하는 사람'을 출간했다. 이 책은 2010년부터 14년간 173회에 걸쳐 현대문학에서 연재되고 있는 안동문의 그림 에세이다. 책에는 미술, 문학, 철학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작업해 온 안동문의 일과 공부, 사람과 사물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들이 57편의 스케치와 함께 담겨 있다. 한편 안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후 7년 동안 계간미술에서 기자로 일했다. 이후 독일 슈투트가



르트 국립미술학교에서 수학했다. 10여 회의 개인전과 여러 기획전시회에 참여했으며 199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를 역임했다. 펴낸 책으로는 '그림 없는 미술관', '그 남자의 가방', '43 tables', '아홉 마리 금붕어와 먼 곳의 물', '사물의 뒷모습',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안규철의 질문들' 등이 있다. 역서로는 빌렘 플루서의 '몸짓들', 히토 슈타이얼의 '진실의 색' 등이 있다.

스리랑카에서 한국화워크숍 개최 신하순(83동양) 외

신하순(83동양), 송근영(86동양), 조은령(87동양) 동문은 지난 2월14일 스리랑카 콜롬보 University of the visual and performing Arts에서 미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한국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한국화 워크숍은 한지와 동양화 붓, 먹물을 가지고 학생들과 교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사)한국화진흥회(이사장 김춘옥/64회화)가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 Lionel Wendt Art Centre에서 열



'A Breeze from Korea'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한국 부채전 기간 중에 진행된 일정이었다. 김춘옥 이사장은 "같은 아시아 지역의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문화 교류는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의 정신적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우리의 심오한 미학을 선보여 이해와 연결을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UX·UI 디자인교과서 출판 연명흠(87산미) 정의철(88산미) 정의태(92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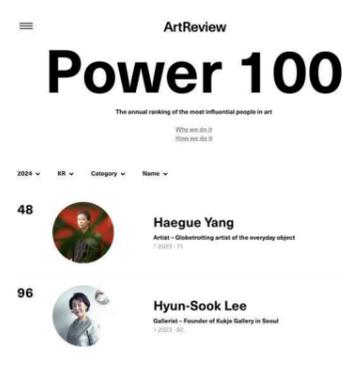
연명흠, 정의철, 정의태 동문 3인이 지난 1월 15일 안그래픽스에서 'UX·UI 디자인 교과서'를 출판했다. 이 책은 지식정보 혁명의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사용자 경험(UI)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X) 디자인이 더욱 중요해진 요즘 사용자의 요구와 행동을 분석해서 제품 및 서비스의 구조와 흐름을 설계하고, UI 디자인은 그 구조를 기반으로 직관적이고 매력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접근을 돕기 위해 쓰였다. UX·UI 디자인은 제품의 외형을 돋보이게 만드는 데서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할 때의 전체적인 느낌과 외형



을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UX·UI 디자인은 디자인 분야를 비롯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불가결한 학문이 되었고, 디자인 프로세스의 개별 단계와 방법론에서 필수 디자인이 되었다. 'UX·UI 디자인 교과서'는 탄탄한 이론과 실무는 물론 UX·UI 디자인의 여러 영역을 다루고 있어, 학생은 물론 실무 디자이너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통합 교과서이다.

아트리뷰 '미술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양혜규(90조소)

양혜규 동문이 지난해 12월 5일 영국 현대미술 전문지 아트리뷰가 선정하는 '미술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올랐다. 아트리뷰에 따르면 양동문은 48위를 차지했다. 아트리뷰는 2002년부터 매년 미술계 영향력 있는 인사 100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양동문은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미국 델러스 내셔조각센터에서 한국인 최초로 개인전 '양혜규: 사라진 땅과 침몰한 세상을 개최한다. 세계 최고의 근현대 조각 컬렉션을 보유한 내셔조각센터의 큐



레이터 리 아놀드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조각에 대한 모더니즘적 관념을 전복시켜 온 양동문의 작품을 집중 조명한다. 기존 작품과 더불어 새롭게 시도한 소형 조각 및 공중 조각 50여 점이 미술관 전관에 걸쳐 밀도 있게 배치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작품들은 대부분 자연을 품고 있음에도 매우 작고 가벼운 조각으로 선보여졌다.

인천미술협회장 당선 강형덕(84서양)

강형덕 동문이 제17대 인천미술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지난 1월 18일 인천예총회관에서 치러진 인천미술협회 회장 선거에서 기호1번 강동문은 총 542표 가운데 249표를 득표했다. 뒤이어 기호2번 전운영 후보가 214표, 기호3번 이관수 후보가 79표를 얻었다. 강동문은 "오랜 기간 침체한 협회 분위기를 바꿔 보고자 하는 회원들의 염원이 투표로 이어진 것 같다. 기대에 부응해 인천 미술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인천미술관 관련 기획단을 꾸리고, 미술인들



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출 생각"이라며 "시립미술관뿐 아니라 인천의 공공전시관에 대한 접근도 쉽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래, 서정미, 신은섭 회원이 부회장으로서 강동문과 함께 새롭게 집행부를 꾸린다. 한편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강동문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철학과 예술철학을 전공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본질로 가는 길 조영동(53회화)

조영동 동문의 초대전 '본질로 가는 길'이 서울 종로구 충북갤러리에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1월 20일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는 지역 연고 작가에 대한 미술사적 조명 작업과 위상 정립에 의의를 두며, 조동문의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충북 지역의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다. 조동문의 뜻에 따라 유작을 성신여대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에 기증하고, 유가족이 간직하고 있던 작품 중 50여 점을 선정했다. 그는 추상미술의 흐름에서 사물의 근원을 찾아 조형의 원리를 탐색하는 작업으로 끝까지 추상미술에 천착해 왔다. 조동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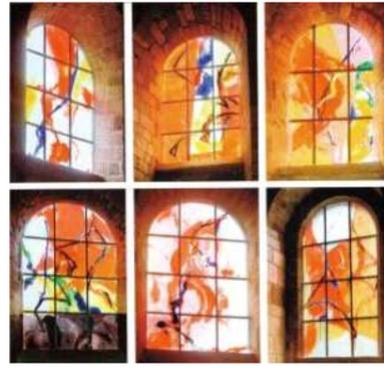


고 밝혔다.

추상회화 양식은 조형적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변모를 시도했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대주제는 구조의 본질을 찾는 과정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래의 것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순수조형에서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충북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충북 지역 작가로서 누구보다 순수예술 행위와 고귀한 정신으로 근원적 조형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작가에 대한 발자취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지 않는 색들 김인중(59회화)

김인중 동문의 초대전 '보이지 않는 색들 Les couleurs de L'Invisible'이 오는 3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프랑스 상보르성(Château de Chambord)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김동문이 프랑스와 독일의 스테인드글라스 공방에서 제작한 40여 점의 작품이 850㎡ 규모의 전시공간에서 5개월 동안 전시되며, 관람객들은 그의 붓 터치가 스테인드글라스 예술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김동문은 2월과 3월 상보르성에서 머무르며 세 점의 신작을 제작한다. 이 세 작품 중 한 점은 이번 전시회의 대표 작품으로 선정되어 특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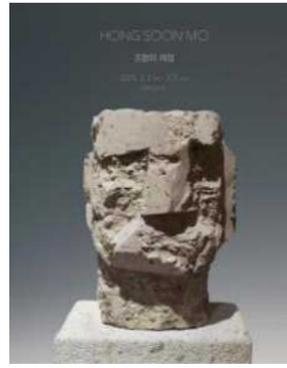


이어가고 있다.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김동문은 1969년 스위스로 건너갔고 1974년 수도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이후, 사제와 예술가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 1998년 에브리 대성당에서 그의 첫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이 공개되며, 빛을 활용한 예술적 재능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현재는 KAIST대학교 초빙 석좌교수로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화업을

조형의 여정 홍순모(68조소)

홍순모 동문의 개인전 '조형의 여정'이 지난 2월 7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 SPACE 97에서 열렸다. 홍동문은 도자공예의 원료로 사용되는 무안점토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해 왔다. 그의 작품은 무안점토 분말에 모래, 폴리에스테르, 호마이카(Formica, 플라스틱 합성수지의 일종) 등 다양한 재료들을 섞어 만든 원료로 만들어져 거칠고 투박한 질감이 돋보인다. 조각가 최종태는 홍동문의 작품에 대해 "홍순모의 형태를 보고 있노라



면 거칠고 영성함 같은 것이 먼저 눈을 자극한다. 그리고 어떤 아픔이 내면으로 들어온다. 뒤따라 고통함과 슬픔이 스며온다. 한참 보고 있노라면 소박함과 사랑스러움과 고독함과 유머러스함이 서로 교차하면서 물결친다. 그리고 한참 보고 있노라면 조형의 말로 짜 놓은 문장이 읽힌다."고 밝혔다. 한편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홍동문은 1979년부터 2014년까지 목포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일곱 개의 한강 풍경 선우항(91서양)

선우항 동문의 개인전 '일곱 개의 한강 풍경'이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종로구 평창동 Art Space Qualia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선우동문이 바라보던 한강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 소개될 예정으로, 노을이 반영된 물결과 도시의 실루엣 멀리서 묵묵히 강을 바라보는 북한산과 관악산, 늘 강물과 함께하는 교량의 역동적 형상을 석회벽화기법으로 표현했다. 전시기간 중 매일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프레스코 작업의 제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



해 참여자들은 프레스코 작품을 제작하고 소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선우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 후 프레스코에 대한 연구로 고려대에서 석사, 건국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다수의 단체전 및 3회의 유화 개인전, 10회의 프레스코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 모교 동양화과 벽화기법 강사로 재직 중이다.

해 참여자들은 프레스코 작품을 제작하고 소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선우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 후 프레스코에 대한 연구로 고려대에서 석사, 건국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다수의 단체전 및 3회의 유화 개인전, 10회의 프레스코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 모교 동양화과 벽화기법 강사로 재직 중이다.

후원광고

선우 항

일곱 개의 한강 풍경展

landscape of seven with Hangang river

2025.3.21 - 4.1

Art Space Qualia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65-3
아트스페이스 쉼리아

Fresco and day class
2025.3.21 - 26
2025.3.28-31
PM 1 ~ PM 7
02-379-4648

02-379-4648

숲은 나를 안고, 말없이 이해해 주는 안말환(76회화)

안말환 동문의 신년 초대전 '숲은 나를 안고, 말없이 이해해 주는'이 제주 컬처 스페이스 H에서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열렸다. 안동문은 그동안 바쁜 현대인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선물하는 나무를 주제로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무들이 혼돈 속에서 불안하고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신선한 숲,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깨끗한 호흡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두터운 마티에르 위에 단순화된 형태로 화면을 구성한다. 돌가루



안말환 초대전
2025.1.20(수) - 2.20(수)
컬처스페이스 H

와 혼합재료를 사용하여 절제된 색채와 선으로 자연의 복잡함과 인간의 감정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했다. 안동문은 최근 서귀포 제주부영호텔&리조트에서 초대전과 함께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제주 시로 장소를 옮겨 이번 신년 초대전을 준비했다. 이번 전시에는 100호 이상의 대작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작가와의 아트토크 시간도 마련되었다. 한편 안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뒤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와 혼합재료를 사용하여 절제된 색채와 선으로 자연의 복잡함과 인간의 감정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했다. 안동문은 최근 서귀포 제주부영호텔&리조트에서 초대전과 함께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제주 시로 장소를 옮겨 이번 신년 초대전을 준비했다. 이번 전시에는 100호 이상의 대작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작가와의 아트토크 시간도 마련되었다. 한편 안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뒤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Flower No Flower-시간 안영나(80회화)

안영나 동문의 개인전 'Flower No Flower-시간'이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갤러리에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열렸다. 안동문은 꽃을 소재로 삼아 전통과 현대 회화를 융합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안동문의 작업들 중 <황금시대>, <꽃의 격려>, <시간>시리즈 30여 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안동문은 "오래전부터 한국화의 새로운 표현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이번 전시에서는 민화의 전통적인 조형성과 색채를 사용했다. 한국화는 전통에만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



고등법원, 아라리오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는 서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인의 마음과 이상을 담는다는 자세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에서 동양화전공 졸업한 안동문은 33회의 개인전을 가졌고 500여 회의 국내외 그룹전 및 기획초대전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고등법원, 아라리오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는 서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pilgrim's philosophy 권여현(81회화)

권여현 동문의 개인전 'pilgrim's philosophy'가 지난 1월 21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서울 성북구 스페이스 슈퍼노말에서 열렸다. 권동문은 회화를 통해 상상 속 유토피아를 현실세계에서 실현시키고자 했다. 이곳은 두세 가지의 다른 공간이 조합된 가상의 장소이며 공익과 절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가치 아래 희생되고 생략되고 반올림되지 못한 채 소멸되어야 했던 것들이 저장되고 하위문화를 대변하는 장소다. 한편 권동문은 회화에서 붓질의 빠르기와 얇



은 막을 형성하는 스트로크, 맑은 색채를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혼을 담아서 한 획 한 획 구도하듯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심하게 툭툭 쳐버리는 필법을 구사하고자 한다. 그는 작가의 역량이 간결하게 녹아있을 때 관객은 그 작품을 보고 살아 움직임을 느끼게 되고 한 번의 붓질에서 색채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표현되고 형태의 경계선은 흐리거나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유산-향해 윤영화(84서양)

윤영화 동문의 전시 '유산-향해'가 지난 1월 24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봉산문화회관 2층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윤동문은 그동안 회화,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는 확신할 수 없는 시대에 인간이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 과연 영원한 것은 존재하는지 등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이번 전시는 질문에 대한 윤동문의 답과 그것을 모색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장이다. 20여 년간 바다를 가까이 두고 살아온 윤동문은 배와 소금 같은 소재들을 빌려 자신의 삶을 표현한다. 그의 작업에서



나무 등의 영상, 바닥에 가득한 소금을 마주하게 된다.

삶은 무수한 파도를 버티며 목적지에 다다르는 배로 치환되어 우리가 끊임없이 삶에 대해 실존적 의미를 찾아내도록 한다. 이번 전시는 2008년부터 이어진 봉산문화회관에서 기획한 유리상자-아트스타 전시공모 선정작가展이다. 관객들은 전시 공간에서 중앙에 빛을 아래로 품고 있는 태운 나무 배 구조물과 뒷면 벽에 상영되는 파도가 치는 바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등의 영상, 바닥에 가득한 소금을 마주하게 된다.

palimpsest 덧쓰기 이상은(86서양)

이상은 동문의 초대 개인전 'palimpsest 덧쓰기'가 지난 2월 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종로구 미앤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그동안 삶의 경험을 상징하는 수많은 선들을 다양한 색으로 쌓아가는 작업을 통해 기억의 조각들이 화면 안에 축적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다양한 색과 선들을 달력처럼 하루, 한 달, 1년의 시간으로 질서 정연하게 나열하기도 하고, 머릿속 기억처럼 두서없이 뒤엉키게 쌓기도 한다. 이렇게 집적된 시간의 흔적들은 쌓이고 지워지고, 다시 쌓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과거의 기억들은 현재의 시선에서



이상은 초대전
Lee Sang-un Solo Exhibition
PALIMPEST_덧쓰기
2025.2.4(수) - 2.18(수)
미앤갤러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0길 13-1)

새롭게 재구성되며, 예상치 못한 색채와 선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번 전시에서 이동문은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들이 쌓이고 그 위에 새로운 기억이나 감정이 덧붙여지는 반복적인 과정을 되새기고자 했다. 이 방식은 기억의 비선형적인 흐름과 경험의 복잡성이 가시화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전시는 이동문의 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축적되는 경험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드림어스 DREAM US 정의철(88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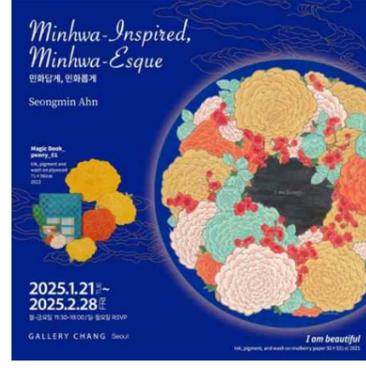
정의철 동문의 HCID Lab 외 3팀의 '드림어스(DREAM US)'가 성수 폴리(PLLI)에서 지난해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열렸다. 전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드림어스'는 꿈의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반 참여형 VR 전시로 예술, 기술, 심리학이 결합되어 사람들이 자아를 인식하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세계를 제공하고자 했다. 전시는 현실과 비현실이 조합되는 특성을 가진



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꿈의 세계를 메타버스 공간으로 그려내기 위해 세 팀은 전문성을 발휘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가상 공간에서 시각화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또한 참여자들이 꿈의 세계를 재현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성을 기획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A477jWFzT0s&t=5s> 에서 지난 전시내용을 볼 수 있다.

민화답게 민화롭게 안성민(91동양)

안성민 동문의 개인전 '민화답게 민화롭게'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갤러리 장 서울 삼성동 호텔 오크우드에서 열렸다. 안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모란도, 책거리 등 19~20세기 전통 민화도상과 서구문화의 오브제 및 일상 환경을 병치시키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신작 <I Am Beautiful>은 라운드로 제작된 장지에 채색된 작품으로써 전통 민화의 모란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했다. 2024년에 제작한 <Beauty is Within>은 나무판 위에 채색된 작품



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며 전통과 현대적 시각의 균형을 미러를 통해 다시금 제시하며, 2023년작 <MAFIC BOO_PEOONY_01>은 전통 민화 모티프를 초현실적인 구성과 색채로 표현하여 현대적 해석의 정수를 보여준다. 한편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안동문은 미국 메릴랜드 미술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이다.

아름답고 무용한 것들 김현정(94조소)

김현정 동문의 개인전 '아름답고 무용한 것들'이 지난 2월 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 더플렉스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수년에 걸쳐 철학과 역사, 미술사에 드러난 기존 세대의 고찰을 통해 그의 시각적 언어를 개발하며 답에 다가가고자 노력해 왔다. 그는 진주, 금, 보석 등 귀중함으로 상징되는 재료를 주로 사용하며 이 재료들로 인간 삶의 중요한 언어들이 지닌 가치를 시각화하고, 점자의 코드와



점을 사용하여 언어 형식으로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전시는 한국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등장하는 인물의 대사인 '아름답고 무용한 것들'을 인용하여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한편 모교 조소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김동문은 몬클레어대학교에서 스튜디오아트 석사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미국 토피도 팩토리 아트센터에서 협력작가로 활발히 작업 활동을 지속 중이다.

사이공간 Scene of Between 장양희(94서양)

장양희 동문의 개인전 '사이공간 Scene of Between'이 지난 2월 4일부터 9일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 더플로우에서 열렸다. 장동문은 인간의 신체를 소재로 삼아 인간의 존재와 이들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에 대한 작업을 해왔다. 그는 개인의 신체, 군중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찍거나 우연히 찍힌 사진들을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이미지에서 원본을 배제시키고 인간의 형상을 그림자나 흔적처럼 화면에 표현한다. 불특정 다수의 인물들을 초점을 흐리거나 노이즈를 만드는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개개인의 정체성을 은폐하고 신체로 이



루어진 풍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현대사회에서 인간을 지시하는 일관된 이미지들이 유효한 것인지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밝힌 장동문은 회화뿐만 아니라 라이트 박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판화나 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본인의 작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장동문은 동대학원에서 판화전공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갤러리라메리, 세이지그린티, UV 하우스, 토포하우스, 갤러리이드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다.

작은사람, 큰사람 류은선(16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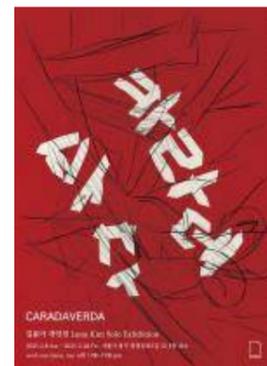
류은선 동문의 개인전 '작은사람, 큰사람'이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 작은미술관에서 열렸다. 류동문은 일상을 포착하고 주변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집중하며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는 포착한 일상을 한지에 담아내면서 제 3자인 아이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하여 그 안에서 작가 스스로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기도, 자아상을 찾기도 한다. 또한 일상에서 접하는 평범한 대상이자 동시대의 한국에서 점차 희귀해



지고 있는 아이 표현을 통해 도시의 메마른 견고함과 소통의 벽을 무너뜨리는 힘을 발견하고자 한다. 한편 류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모교 박사과정에 있다. The 40th International TAKIFUJI Art Award(2019), 서울대학교 학문 후속세대(2021-2022), 성남문화재단 청년예술프로젝트(2023) 등에서 수상 및 선정되었으며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을 열었다.

카라데바다 김륵아(19졸,서양)

김륵아 동문의 개인전 '카라데바다'가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 중구 COSO에서 열렸다. 전시제목인 '카라데바다'는 일본어로 몸을 말하는 카라다(体)와 의학 해부실습용 카데바(Cadaver)의 비슷한 발음에서 착안한 말장난 합성어다. 体는 몸 체자의 속자로 쓰이는데, 거의 쓰이지 않는 원래 뜻은 '용렬한 분'이다. Cadaver는 쓰러진 것을 뜻하는 라틴어 'Cadere'에서 유래했다. 몸은 태어남과 동시에 바로 죽어간다. 김동문에 따르면 분출하면서 죽어가는 것, 인형이지만 사람처럼 구는 것, 찰흙을 굳혔다가 물을 뿌려 다시 약간



유연하게 하는 것, 반죽일 때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던 흙과 방이 건조면 변형에 한계가 있는 것, 그럼에도 여전히 변형될 여지가 있으며 자연의 질서에 속하는 것이 이것이 그가 물감과 붓과 그림을 사랑하는 이유라고 한다. 사뮈엘 베케트가 "장애의 화가들"에서 언급한 두 종류의 예술가에 대해 김동문은 불가능에서 오는 절망감과 이를 즐기는 화가의 아이러니한 태도를 느끼면서 오히려 이들을 작품을 볼 때 아이러니보다는 생동하는 무생물, 카라데바다를 만드는 즐거움만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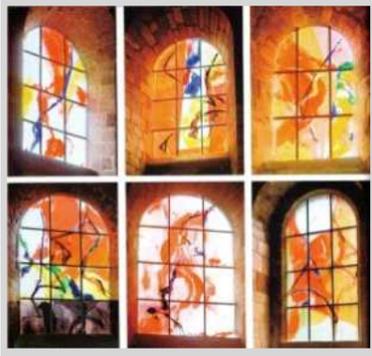
땅, 소비되는 신화 오다교(석21졸 동양)

오다교 동문의 2인전 '땅, 소비되는 신화'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 강남구 서정아트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흙과 모래 등 자연에서 채집한 에너지에 주목해 온 오동문의 차분한 신작들과 건축물, 그리고 송지윤 작가의 작품들로 구성됐다. 오동문은 '땅'을 생명과 시간의 흔적이 퇴적된 근원적 존재로 해석하여 이번 전시에서 'Reflective' 연작을 통해 땅과 인간의 관계와 그 사이를 교차하며 땅속에 내재된 생명과 소멸의 순환을 조명했다. 또한 그는 흙, 모래, 숯과 같은 자연의 근원적 재료를 사용해 땅의 질감과 수분을



표현하고, 자연의 빛과 바람, 습도를 반영해 땅의 기운을 담아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그는 작업을 통해 자연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며 생명의 흔적을 쫓는다. 한편 오동문은 파리 1대학 팡테옹 소르본에서 조형예술을 전공하고 모교 동양화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동안 경기도 성남시의 성남큐브미술관을 비롯해 파이프갤러리 등 국내외 미술관과 화랑에서 개인전과 그룹전을 가졌다.

3월의 전시



보이지 않는 색들

김인중(59회화)
2025.3.29.-8.31
프랑스 상보르성



일곱 개의 한강풍경

선우항
2025.3.21.-4.1
아트스페이스퀼리아



역사화의 새 지평시대를 보다

강요배(72회화) 서용선(75회화)
2025.3.11.-6.8
제주도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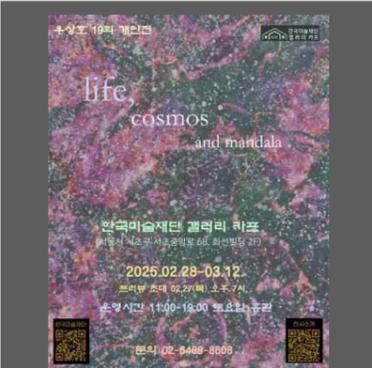
전신과 진경

김현철(79동양)
2025.02.28.-4.12
검재정선미술관



나는 피안으로 간다

유현경(09줄 서양)
2025.2.28.-4.11
갤러리 JJ



Life, Cosmos and Mandala

우상호(89서양)
2025.2.28.-3.12
갤러리 카프



어떤 날 Now-A-Day

민재영(86동양)
2025.2.27.-3.15
소노아트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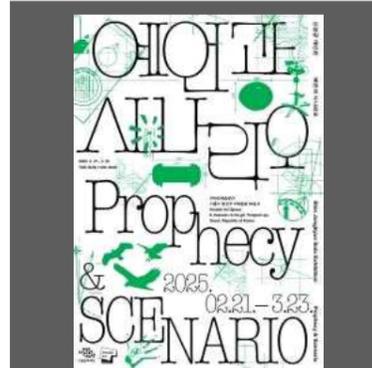
어느 봄날... 머무는 그리움

이혜민(74응미)
2025.2.24.-3.25
벨라한갤러리



DRS

윤경원(19동양) 외 2인
2025.2.22.-3.23
실린더 1



예언과 시나리오

신정균(12줄 서양)
2025.2.21.-3.23
아마도예술공간



필(筆)과 묵(墨)의 세계

윤형근(47회화)
2025.2.4.-3.22
S2A



A Full Cup

김다운(09동양)
2025.2.1.-4.3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사라진 땅과 침몰한 세상

양혜규(90조소)
2025.2.1.-4.27
The Nasher Sculptu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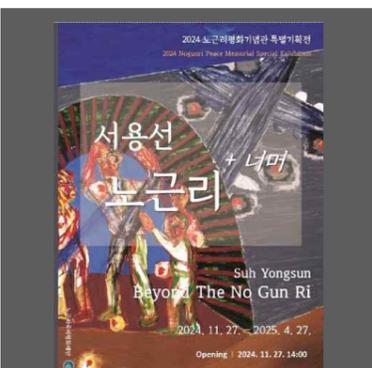
유산-향해

윤영화(84서양)
2025.1.24.-3.30
봉산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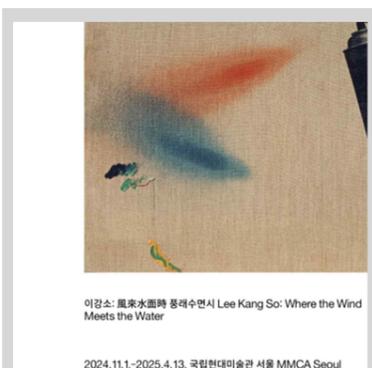
RIM SONG JA

임송자(59조소)
2025.1.17.-3.23
김종영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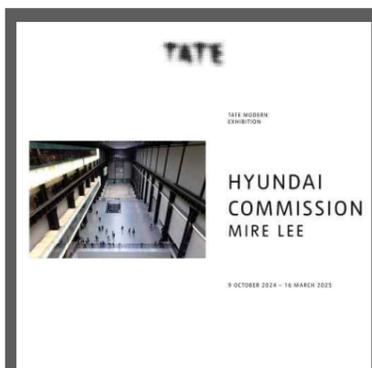
노근리+너머

서용선(75회화)
2024.11.27-2025.4.27
노근리평화기념관



이강소 : 풍래수면시

이강소(61회화)
2024.11.1-2025.4.1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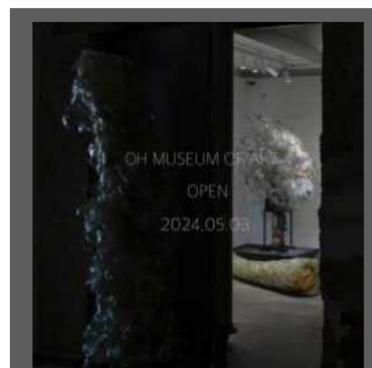
현대 커미션 : 이미지

이미래(08조소)
2024.10.8-2025.3.16
테이트모던 터바인홀



투명하고 향기나는 천사의 날개 빛깔처럼

신미경(86조소)
2024.6.4-2025.5.5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Oh Chigyun's New Works

오치균(76회화)
2024.5.2-2025.4.30
오치균 미술관